

지역 소식통

반부패 청렴의식 제고  
청렴서약 결의대회

김제시는 1일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반부패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클린 김제 구현의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청렴서약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렴서약 결의대회에는 박준배시장을 비롯하여 조직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간부공무원과 직원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제시 행동강령책임관인 구명석 기획감사실장과 신규 공무원인 강소리 주무관이 선서 대표로 나선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청렴하고 깨끗한 사고와 행동으로 공직사회 부정부패 적절과 공정한 사회문화 조성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결의대회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의 법과 원칙 준수, 부당한 이익추구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의 청렴의지를 약속하는 5개 조항의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며 실천 의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동김제 로컬푸드-전북경  
찰청 블루베리 시식행사

김제시 향토산업육성사업인 로컬푸드사업 다각화 일환으로 (사)김제도농협력사업단(단장 최승일)과 동김제농업협동조합(조합장 최진오)은 전북경찰청 구내식당에서 최근 블루베리 시식행사를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시식행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농산물판매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직매장 출하농가에서 갖 수확한 블루베리를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며, 우수한 김제 농산물의 품질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한편 동김제농협 로컬푸드점은 2014년 개업해 전북경찰청을 비롯한 김제시청, 도청, 전북교육청, KBS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김제 농산물이 공급급식으로 유통되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시식, 판촉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미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김제로컬푸드 농산물이 다양한 기관의 공급급식으로 유통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신(新)완주 비전 적극 실현 할 것”

완주군, 주민참여예산 공모

2021년 61억원 규모 예산 편성 반영... 오는 24일까지 접수

박성일 군수, 민선7기 2년 시작 첫날 간부회의서 '신(新)완주 실현 6+4 비전' 선포

'매일 앞으로 나아가고 매달 도약한다'는 일진월보(日進月步)의 행정 의지 피력

박성일 완주군수가 1일 완주 정채성 화합과 수소산업 등 신성장 육성, 도시 기반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신(新)완주 실현 6+4 비전'을 선포하고 15만 자족도시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박 군수는 또 4대 핵심 비전 중 '수소경제 중심 도시 완주'의 기반 조성을 위해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투트랙 전략에 집중하는 한편 수소안전 기반 구축과 안전관리 강화 사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박 군수는 민선 7기 후반기 2년 첫날인 이날 간부회의의 석상에서 "소득과 삶의 질 높은 15만 자족도시 완주를 목표로 군정이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뛰어왔다"고 전제, "이제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다함께 열어나가는 미래 100년 신(新)완주 비전을 적극 실현해 나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군수가 이날 제시한 '신(新)완주 실현 6+4 비전'은 △완주군 정채성 재정립 △거점도시 기반 구축 △신성장산업 육성 △코로나19 시대 대응 △국가예산 5천억 시대 달성 △공약이행 100% 총력 등 6대 중점 방향에 △수소중심도시 완주 △공공체 문화도시 비상 △소셜굿즈 2025플랜 본격화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내실화 등 4대 핵심 비전이다.

우선 정채성 재정립은 2100년 전 한반도 급속문명의 태동지인 완주군의 옛 명성을 되살려 군민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고양하고, 하이테크를 우선 도입한 선인들의 도전 정신을 100년 신완주 실현의 에너지로 전환해 나가자는 취지이다. 거점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서

는 테크노밸리 2산단(3,444억 원)과 중소기업 전용농공단지(350억 원) 조성, 첨단 스마트 농공단지(705억 원), 복합행정타운(993억 원), 삼봉웰빙시티(1,882억 원), 마니복합타운(3,300세대) 추진 등 1조원 규모의 대형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32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완성하고 1만천 세대의 주거단지를 구축할 수 있음은 물론 1만6천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박 군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과 경제'의 쌍골이 전략을 강화,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골목상권 살리기에 적극 나서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올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해 4천억 원 시대의 문을 연 국가예산의 경우 정치권의 협력 시스템을 가동해 2022년 국가예산 5천억 원 시대를 개막하는 등 지역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고, 군민과의 약속을 최우선하기 위해 민선 7기 공약이행 100% 달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구

사이다. 박 군수는 또 4대 핵심 비전 중 '수소경제 중심 도시 완주'의 기반 조성을 위해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투트랙 전략에 집중하는 한편 수소안전 기반 구축과 안전관리 강화 사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체 문화도시 완주'를 위해선 올 연말 법정문화도시 최종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주민의 문화적 삶 증진과 문화 참여, 관광사업 확대 등을 통해 문화도시 완주를 각인해 나가기로 했다.

박 군수는 "수소산업과 문화도시 완주는 지역발전의 비상(飛上)을 위한 양날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완주 100년 신성장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이들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군정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이날 민선 7기 2년의 군정 주요성과를 밝히고, 매일 앞으로 나아가고 매달 도약한다는 일진월보(日進月步)의 의지를 다졌다. 이날 군정 주요성과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수소 시범도시 선정, 법정 문화도시 예비 지정,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추진, 완주 공동생강의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정 등 '신(新)완주 구상'의 핵심 비전을 가시화하고, 15만 자족도시 도약을 위한 도시성장 기반을 가속화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61억원에 달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한다.

1일 완주군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해 61억 8천만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완주군민이면 누구나 사업을 제안할 수 있고 공모분야는 군단위 정책사업과 읍면단위 지역사업이며 인건비, 행사상 경비 등은 제외된다.

군 단위 정책사업은 일자리·사회복지·체육 등 군정사업과 관련된 군 정책분야, 청년 권익증진·교류·소통·활동 분야 등을 지원하는 청년분야,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을 육성하기

위한 아동청소년분야, 소셜굿즈, 공유경제 등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분야, 문화예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분야, 농업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분야 6개 분야로 나눠 접수 받는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경제 및 문화관광분야가 신설돼 더욱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안 사업은 완주군 홈페이지 또는 해당읍면 사무소로 방문 제출하면 되며 접수된 의견은 군·읍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우선순위 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후 완주군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년 예산에 최종 반영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수당 대상 확대

완주군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있다.

1일 완주군은 호국보훈수당 지원대상자를 확대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군은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5·18민주유공자, 4·19혁명유공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호국보훈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호국보훈수당 지원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군은 지난 4월에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의 부모 유족과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호국보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외에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과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와 사업비를 7개 단체에 지원하는 등 유공자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에게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미래 세대들이 존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보건소, 청소년 학교흡연 예방 교육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는 1일 청소년 건강행태 개선 및 인식개선 도모를 위해 김제 만경여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생활실천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청소년 흡연의 심각성, 간접흡연의 피해, 흡연에 대한 폐해 및 질병 등 건강한 학교 환경조성과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진행으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청소년기 건강증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금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보건소 프로그램 안내로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은 '19년 6.7%로 담보 상태이다.

최근 다양한 담배 마케팅과 신종담배 출현은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을 쉽게 담배에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노

출시킨다. 청소년 시기의 흡연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으로 더욱 민감하게 피해를 초래한다.

흡연은 시작 연령이 낮을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커져 금연이 어려워지며 평생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성인기의 질병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며 담배를 일찍 피우기 시작할수록 흡연으로 인한 수명 단축 피해는 크다.

김제시보건소에서는 청소년기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흡연의 폐해에 관하여 학교흡연예방교육을 적극 실시 하고 있다.

김제시보건소관계자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강화로 청소년 흡연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민선7기 2주년 맞아 성과·비전 발표

민선7기 3년차를 이끌어 갈 '5대 분야 중점 추진전략' 제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민선7기 2주년을 맞아 1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기념식과 김제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취임 2년간의 성과와 비전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기념식은 7월 청원조화와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식전공연은 생략하고 생활속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가운데 2주년 기념 동영상 상영, 시상식, 기념사 및 당부말씀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박준배 시장은 기념식에 이어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변화와 혁신으로 이룬 지난 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2년간 '경제도

약, 정의로운 김제' 시대를 열어 나갈 정책들을 시민들에게 제시했다.

이어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 설계'라는 주제로 민선7기 3년 차의 김제시 현안과제에 총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하며 '5대 분야 중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코로나 위기속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도약하여 김제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마음 깊이 새기며,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올바른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랑하는 고향, 김제를



“푸른 꿈이 넘실대는 희망의 땅”으로 만들어 시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남은 2년간의 포부를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